

謹賀新年

국가유공자 단체장 신년사

회갑 4·19, 혁명정신 국민께 다가가야

4·19혁명공로자회장 강영석

4·19혁명공로자회 회원 여러분, 국가유공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했을 때 많은 혁명 관계자들은 부푼 가슴에 큰 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흘러간 세월과 함께 젊은 시절의 정열과 정의심이 새삼스럽게 구름처럼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12년간 계속된 독재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학생들은 결코 정권에 욕심을 낸 추세배(追勢輩)이기를 거부하고 혁명이 성공한 후 학원으로 돌아갔으며 야당이 정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군사독재의 길을 열어준 것은 무능한 정권의 말로를 보여준 극명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정의, 4·19혁명정신은 허망하게 군화발에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4·19혁명은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민 주권 운동의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혁명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회갑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기에서 회갑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학식,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혁명정신 역시 지금부터 새로운 큰 걸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금년은 무엇보다 정부가 약속했던 미포상 유공자들이 대거 건국포장을 수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당시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공로자들이 건국포장 수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응분의 예우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라사랑 한마음으로 투철한 국가관 실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장 이종열

2021년 풍요와 여유의 의미가 담겨 있는 하얀 소피의 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옛 속담처럼 2021년 신축년은 어김없이 우리들 앞으로 성큼 밝아왔기에 새해를 코로나19의 극복과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과거 국가수호를 위하여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특수임무전사자의 피 끓는 애국 혼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법단체입니다. 지금까지 본회 임직원 모두는 6,000여 생존회원과 유족들을 대표하여 특수임무전사자 및 생존자,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잊혀가는 영웅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국을 위한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투철한 국가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열망했던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통일한국으로 도약을 거듭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 정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삶은 잠시 멈춰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간다면, 새해에는 마스크 대신 반가운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웃을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회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는 가슴 속에 늘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용기 기울여 위기 극복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장 황규승

희망찬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 한해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년 치러왔던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많은 활동제약이 생겨 회원 여러분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난 한해는 태풍으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회원 여러분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전우회는 태풍 및 수해피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며 해외 지부 회원 및 교민들의 마스크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8,000장의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부 및 지회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금지원과 자체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지원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매일 고엽제전우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과 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노력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엔 더 많이 나누고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엔 코로나19의 극복과 재도약의 원년으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반드시 성사시켜 고엽제 전우들의 복지 증진과 명예선양을 위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이사, 시·도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모두 함께 노력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참전용사의 다짐’ 윤리강령으로 실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장 노무식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유공자 회원들은 어느덧 90세의 고령에 이르렀기에 후세들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할 중차대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첫째, 후자녀 회원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금년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후자녀 회원화 입법’이 기필코 성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회원과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문제입니다. 6·25참전용사들과 그 유가족들도 타 보훈단체처럼 보훈혜택을 당당하게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6·25참전 회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유공자회원들이 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적어도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본인 사망 시에는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혈맹으로 맺어진 유엔참전국가들과 협력과 친목을 통해 6·25전쟁의 역사성을 확실히 공유하면서 그들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유공자회는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낸 대한민국 최고의 호국안보단체로서 회원 스스로가 갖추어야 할 실천덕목으로 정한 ‘6·25참전용사의 다짐’은 회원들의 윤리강령이며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덕목임을 상기하시고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유공자회 모든 회원은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해낸 6·25참전 호국영웅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금년도 숙원사업들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각오와 단합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